

2018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선정 사업

**다문화해설사와 떠나요!**  
**동화속으로**  
**(다문화해설사 보수교육 과정)**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선정사업

# 다문화해설사와 떠나요! 동화속으로 (다문화해설사 보수교육과정)

2018.5.2.(수)~8.29.(수)

매주 수요일 09:30~11:30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다목적실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5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하는 다문화해설사 보수교육과정 프로그램 '다문화해설사와 떠나요! 동화속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선정 사업입니다. 다문화해설사 양성 심화과정까지 수강한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를 교육·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올 한해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및 유관기관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 ■ 강의 내용 ■

차시	일자	교육방향	내용	비고
1	5.2.(수)	나라별 소개 및 개인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친화력 쌓기</li> <li>• 각자의 근황 소개 및 나라소개</li> </ul>	
2	5.9.(수)	동화구연의 기초 이론과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구연의 정의와 가치</li> <li>• 동화구연의 기본 3요소</li> </ul>	
3	5.15.(수)	손유희의 이론과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유희의 정의 및 가치</li> <li>• 다양한 손유희 표현법 익히기</li> </ul>	
4	5.23.(수)	올바른 발성 및 발음 구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한 발음 구사를 위한 연습</li> <li>• 여러 가지 목소리 표현을 위한 발성법</li> </ul>	
5	6.20.(수)	화술이론과 실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 속 인물 분석법 및 목소리 표현법</li> <li>• 동화속 인물의 다양한 감정 표현법</li> </ul>	
6	6.27.(수)	나라별 동화 선정 및 이야기 전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라별 특색 있는 동화 고르기</li> <li>• 수준별 연령별 동화 고르기</li> </ul>	
7	7.4.(수)	시청각자료 만들기 와 활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 전달을 위한 다양한 시청각 매체의 활용법</li> </ul>	
8	7.11.(수)	화술이론과 실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목소리 표현을 위한 호흡법</li> <li>• 이야기 속 상황에 맞는 목소리 표현법</li> </ul>	
9	7.18.(수)	각 나라 소개 및 이야기 자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라별 소개 자료 만들기 와 동화 소개 자료 만들기</li> </ul>	
10	8.1.(수)	이야기 전달을 위한 표정 연출 및 제스처 표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임을 통한 몸짓 표현 익히기</li> <li>• 다양한 감정 표현을 위한 표정 연출법</li> </ul>	
11	8.22.(수)	각국 소개 및 이야기 전달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발표를 위한 자세와 동화 구연 실습</li> </ul>	
12	8.29.(수)	프리젠테이션 및 동극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발표 및 동극 시연</li> </ul>	

※ 교육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다문화해설사 보수교육 과정

**다문화해설사와 떠나요! 동화속으로**

**동화구연 심화과정**

**강사 : 민은선**  
**(동화구연가, 스토리텔링 전문강사)**

## 다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심화교육

〈머리말〉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여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여년에서 이십년 가까이 살면서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해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언어가 낯설고 문화가 낯설은 환경 가운데 적응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잘 이겨내고 ‘나’를 찾고 ‘가정’을 세우고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됨은 물론 이제 한국사회 안에서 ‘한국시민’으로 정착하면서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여성’으로 인정 받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 이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진정한 ‘한국시민’으로 거듭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을 키우고 언어의 장벽, 생활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이겨낸 여러분들은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만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고 한국사회에서는 여러분들만이 가진 능력을 통해 ‘다문화 강사’라는 타이틀을 얻어 ‘전문여성 인력’으로 거듭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의 역사, 문화, 생활, 그리고 각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생생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완성된 언어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 나라’의 소개를 보다 완벽한 ‘한국어 구사’로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키우고 아울러 ‘한국사회’에서는 ‘능력있는 다문화 강사’로 정착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도 강사 민은선



## 〈〈발음 연습 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까 따 빠 싸 짜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꺼 떠 빼 서 쨌  
고 노 도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꼬 또 뽀 쏘 쪼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후 꾸 뚜 뿌 수 쪼  
그 느 드 르 므 브 스 으 즈 츠 크 트 프 흐 꼬 또 뽀 쏘 쪼  
기 니 디 리 미 비 시 이 지 치 키 티 피 히 끼 띠 빼 씨 쨌

가 가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다 닢 더 더 도 도 두 듀 드 디  
라 라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마 마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바 바 버 벼 보 보 부 뷰 브 비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사 샨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자 차 저 저 조 죠 주 쥬 즈 지  
차 차 처 처 초 초 추 추 츠 치  
카 카 커 켜 코 교 쿠 큐 크 키  
타 타 터 터 토 토투 투 튜 트 티  
파 파 퍼 퍼 포 표 푸 퓨 프 피  
하 하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 〈〈받침연습〉〉

각낙닥락막박삭악작착각탁팍학  
간난단란만반산안잔찬칸탄판한  
갈날달랄말발살알잘찰칼탈팔할  
감남담람맘밤삼암잠참캠탐팸함  
강낭당량망방상양장창강탕팡항

## 〈〈설음 연습 훈련〉〉

‘설음’이란 혀로 움직여서 내는 자음으로 ‘헛소리’를 말하며 설음연습을 많이 하면 혀운동이 활발하여 발음이 정확해 진다. 매일 연습하여 한국어 발음 구사를 명확하게 하길 바랍니다.

- 느긋느긋, 드렁드렁, 따따부따, 프로필라
- 느릿느릿, 드링드링, 따꿈따꿈, 프르스름
- 느름느름, 드름드름, 따귀때귀, 푸룻푸룻
- 느슴느슴, 드슴드슴, 따링따링, 포룻포룻
- 느엇느엇, 드림드림, 따릿따릿, 파룻파룻
- 느긴느긴, 드역드역, 또릿또릿, 포릿포릿
- 느끈느끈, 드끈드끈, 또식또식, 포릿포릿
- 느림느림, 드삭드삭, 뜨끔뜨끔, 팔링팔링
- 느긴느긴, 드랜드랜, 뜨삭뜨삭, 풀링필승
- 느장느장, 드뽀드뽀, 뜨엇뜨엇, 팔힘발힘

## 〈〈다양한 음절 연습〉〉

### (1) 3음절 연습

아침해, 저녁달, 바닷가, 모래밭, 소나무  
개나리, 진달래, 수수밭, 인간성, 주전자  
부뚜막, 태극기, 수돗물, 백두산, 고구려  
월남땅, 내고향, 대구탕, 신선로, 수정과

### (2) 4음절 연습

아네모네, 저산너머, 바지랭이, 맨드라미  
고국산천, 타향살이, 부모형제, 삼강오륜  
사서삼경, 고등고시, 장원급제, 급행버스  
완행열차, 안전제일, 좋은날씨, 밝은달밤  
독서주간, 문화행사, 가을과일, 예술한국

### (3) 5음절 연습

깨끗한 거리, 시원한 아침, 저녁의 햇살,  
강에는 붕어, 산에는 노루, 크리스마스  
편집부 국장, 사회부 기자, 서울특별시  
보내는 선물, 감사의 마음, 차가운 날씨

한국 전래동화

# 강아지똥

원작:권정생 개작:민은선

어느 작은 시골 길 담장 밑에 돌이네 강아지 흰둥이가 똥을 똥어.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강아지똥 곁에 내려앉아 콧코 꼬아댔지요.

“이게 뭐야? 똥이잖아. 에이 더러워. 튼튼.”

“뭐야? 내가 똥이라고? 더럽다고?”

강아지똥은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흐흐흐흐, 흐흐흐흐.”

소달구지 바퀴 자국에서 뒹굴고 있던 흙덩이가 흠뻑 쳐다보고 웃었어요.

“똥 똥에 웃니, 넌?”

“야, 똥을 똥이라 앓고 그럼 뭐라 부르니? 넌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인걸.”

“똥? 똥이라고? 내가 더러운 개똥이라고? 으앙~”

강아지똥은 그만 울음을 터트리며 말았어요.

“강아지똥아, 미안 미안해. 사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은 없어. 너도 분명 어딘가에 쓸모가 있을 거야. 울지마.”

흙덩이가 정답게 강아지똥을 달래 주자 강아지똥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덜컹덜컹~ 저쪽에서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오더니 갑자기 멈추었어요.

“아니? 이걸 우리 밭 흙이잖아. 어제 싣고 오다가 떨어뜨린 모양이군. 도로 밭에 갖다 놓아야겠는걸?”

소달구지 아저씨는 흙덩이를 소중하게 주워 담았어요.

혼자 남은 강아지똥은 흙덩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나도 쓸모가 있을까?”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어미닭 한 마리가 병아리들을 데리고 강아지똥 곁으로 왔어요.

“와~ 먹을거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잠깐만 애들아! 어디보자~ 먹을 거라곤 하나도 없는 찌꺼기뿐 이로군.

애들아 가자.”

어미닭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냥 가버렸어요.

“역시~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강아지똥인걸 뭐~”

강아지똥은 그만 눈물이 나왔어요.

하늘에서도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힘없이 있는 누워있는 강아지똥 앞에 파란 민들레씨가 뼈죽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안녕.”

“너는 뭐니?”

“난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는 민들레야.”

“뭐? 꽃이라고?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곱니?”

“그럼~ 방실방실 웃는 고운 꽃이지.”

“어떻게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니?”

“그건 하느님이 비를 내려 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 주시기 때문이야.”

“그렇구나, 넌 참 좋겠다.”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부러워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더 있어. 바로 네가 거름이 돼 줘야 해.”

“뭐 내가 거름이 될 수 있다고?”

“그래. 네 몸똥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 속으로 들어와야 내가 고운 꽃을 피울 수 있어.”

“와 정말이니? 그럼 내가 널 도울게.”

온 몸에 비를 맞은 강아지똥은 자디잘게 부서져 민들레 속으로 스며들어 갔어요.

봄볕이 따뜻한 어느 날, 시골 골목길에는 한 송이 노란 민들레꽃이 피었어요. 바로

강아지똥이 피워낸 예쁜 꽃이었답니다.

한국전래동화

## 효자 만든 금반지

개작: 민은선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키우는 홀어머니가 있었어요.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뼈가 휘도록 일해서 아들 삼형제를 잘 키웠지요.

“어머니~ 참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장가들면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나이가 들어 장가를 든 세 아들은 서로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며 약속을 하였지요.

하지만 점점 나이 들고 기운이 없어지자 어머니를 구박하는 거예요.

“얘야 밥 안 먹니?”

“우리가 바쁘니 직접 차려 드세요.”

“방이 추운 것 같구나.”

“어머니! 애 아빤이 나무를 많이 못 해 와서 땀감이 없어요.”

결국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 속에서 고생하던 어머니는 병이 나고 말았지요.

“에휴~ 돌아가시지도 않고 저리도 몸져누워 계시니 어떻게 해요?”

“큰 형님이 모셔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아니 왜 우리만 자식 노릇 하라는 거예요?”

세 아들 며느리는 서로 미루다 마침내 홀어머니를 혼자 두고 다 나가버렸대요.

병든 몸으로 혼자 남게 된 어머니는 겨우 겨우 보리죽이나 끓여 먹으며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스님이 동냥을 나왔다가 어렵게 살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혀를 꼴꼴차며 물었어요.

“그런 몸으로 어찌 혼자 사십니까? 자제들은 없나요?”

“아들 며느리가 삼형제 있습니다만 저희들 살기도 바쁘데 늙은 저를 돌볼 틈이 있겠어요? 자식들한테 걱정거리 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맘 편하지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궁리를 하던 스님이 바람에서 금반지 하나를 꺼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건너 마을 황부자덕에서 시주 받은 것인데 병을 고칠 방도가 여기에 있는 듯하니 받으시지요.”

“아니~ 시주는 못 할망정 부처님께 드릴물건을 어찌 제가 받겠습니까?”

“허허 부처님 뜻이니 받아서 꼭 손가락에 끼고 계셔야 합니다.”

역지로 맡기듯 주고 간 금반지가 병을 낫게 해 준다는 말에 스님 말때로 손가락에 끼고 있었대요.

며칠이 지나 큰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찾아왔다가 어머니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니~ 웬 금반지예요?”

“응 시집 올 때 시어른들께 물려받은 걸 내가 이제야 끼워보았다. 죽기 전에 한번 끼워보려고~”

‘와~ 제법 값이 나가겠는 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게 우리 차지가 돼야 할 텐데.....’

그 후로 큰 아들 내외는 매일 찾아와서 불을 때고 밥을 차려 드리고 약도 지어드리게 되었지요.

둘째, 셋째 아들도 찾아와 어머니 반지를 보고 나서는 태도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장에 나갔다가 사왔어요.”

“어머니! 이 옷 한번 입어 보세요. 새로 나온 비단으로 제가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어머니!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예요. 제가 다려 드릴 테니 꼭 챙겨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한 달에 한번쯤 얼굴을 내밀던 자식들이 하루가 멀게 찾아와서 봉양을 하니 어머니는 병이 싹 낫게 되었지요.

금반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효도지만 어쨌든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까지 호강하며 잘 살게 되었대요.

# 아버지의 유산 (탈무드이야기)

개작 : 민은선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해 주세요."

오늘도 우람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돋보기안경 너머로 책을 보고 계시는 할머니 곁으로 와 말했어요.

"어이구. 우리 손주 아직 안 잤어? 어서 자야 키가 쑥쑥 자랄 것 아녀."

"흐응... 할머니. 옛날이야기를 들어야 잠을 자죠. 네 ? 할머니~!"

"알았다. 알았어. 이 할미가 우리 우람이 한테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할머니는 안경을 벗으시며 우람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음...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해 줄까? 그래!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할머니 아버지가 해 주신 이야기를 해 주어야겠구나."

할머니는 우람이 무릎에 이불을 덮어 주시며 옛날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옛날옛날 과수원이 아주 많은 마을이 있었어요. 봄이 되면 과수원에는 아주 예쁜 꽃들이 피어서 마을을 아름답게 물들이곤 했지요. 그 중에서도 이 아름다운 과수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박첨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너무 멀어서 추석이나 설날이 되어야만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첨지가 그만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의원들이 와서 좋다는 약도 다 써보고 침도 놓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박첨지는 곰곰이 생각하다 욕심 많은 하인을 불렀지요.

"공... 돌쇠야. 내가 아무래도 곧 하늘나라로 갈 것 같구나. 가기 전에 우리 아들을 보고 죽어야 할 텐데....."

"아이구. 주인님. 그게 무슨 말씀이셔유~ 도련님도 안 계신디 저 혼자 어찌하라고 그런 말씀 하신데유. 오래 사셔야 도련님도 보실 것 아녀유."

돌쇠는 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돌쇠야..... 내가 아무래도 아들을 못보고 죽을 것 같구나. 내가 죽으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많을 테니 돌쇠 너에게 다 물려주고 가겠다. 그동안 너도 고생 많았으니 이제 잘 살아야지. 그리고..... 한가지 부탁이 있다."

"흐흫... 주인님 말씀하셔유."

"내 아들에게 이 편지를 꼭 좀 전해다오. 너에게 재산을 다 물려준다는 편지다. 대신 아들에게는 무엇이든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가질 수 있게 해 준다는 편지다. 전해줄 수 있겠지?"

"그럼유! 전해드리구 말구유..."

"그럼 난 너만 믿는다..... 꼭 좀 전해다오.

박첨지는 돌쇠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박첨지가 죽고 나자 돌쇠는 너무 좋아했어요.

"히히히...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구먼! 부자! 이제 재 너머에 먹쇠 녀석도 날 보면 굶신굶신 하겠지? 저 아랫마을에 사는 꽃분이한테 장가라도 들까? 아냐, 아냐, 꽃분이보다 연심이 더 예뻐.하하하"

돌쇠는 너무나 들떠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지. 그리고 박첨지 아들을 찾아갔어요.

박첨지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갔지요. 울며불며 장례를 치른 아들은 박첨지의 편지를 보았어요.

"아니...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 모든 재산을 돌쇠에게 주신다니... 믿을 수가 없어. 왜 이런 유서를 남기셨을까?"

아들은 도무지 박첨지의 유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어른! 전 아버지의 유언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보다 돌쇠를 더 사랑하셨나 봐요.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다 돌쇠에게 주실수 있죠?"

사또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보게.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는군. 혹시 다른 유언은 없으셨는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가질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 한가지라....."

다시 한참을 생각한 사또는 갑자기 무릎을 치며 말했지요.

"웁거니! 알았네. 알았어. 자네 아버지가 왜 그런 편지를 남겼는지.ㅏ"

"네? 그게 무엇입니까?"

"자네 아버지는 자네를 무척 사랑하셨군 그래. 잘 생각해보게. 재산을 하인에게 주면 하인은 기뻐하면서 자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리지 않겠나?"

"네, 그건 그렇지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허허허! 자네가 하인을 갖는다면 그 재산은 모두 자네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 때는 말이죠. 하인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 되는 세상이었어요. 아들과 돌쇠는 그것을 몰랐던 거지요. 아버지는 욕심 많은 하인이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 갈까 봐 그런 지혜를 내신 거였던거예요.

사또의 말을 듣고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게 되었대요.

"어때... 재미있었니? 허허 녀석 벌써 잠이 들었구먼."

어느새 우람이는 할머니의 다리를 베고 편안한 미소를 띠며 꿈나라로 가고 있었답니다.



# 으뜸헤엄이

원작: 레오리오니, 개작: 민은선

깊은 바다 속 한 구석에 빨간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놀고 있었어요.

까만 물고기 한 마리가 다가가 인사했어요.

“얘들아 같이 놀자.”

“이상하다. 너는 왜 까만색이니?”

“그러게, 우리랑 색깔이 다르잖아.”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쳇 우리랑 다른 친구와는 놀 수 없어.”

친구들이 가버리자 심심한 까망이는 혼자 수영연습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섭고 날쌔 상어 한 마리가 쏜살같이 헤엄쳐왔어요.

“앗! 상어다. 모두 도망가.”

“더 빨리 헤엄쳐! 그러다 잡혀”

배가 고프 상어는 빨간 물고기 떼를 한입에 꿀꺽 삼켜 버리고 말았지요.

“휴, 겨우 도망쳤네. 친구들은 어디 있지? 얘들아~ ”

하지만 빨간 물고기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혼자 살아남은 까망이는 바위와 물풀 사이를 헤엄치며 깊은 바닷속을 여행했지요.

“와 멋지다. 정말 예쁜 것들이 많이 있네”

알록달록 무지개빛 해파리, 가재. 빛이 나는 뱀장어, 말미잘, 산호.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위틈에 숨어 있는 빨간 물고기 떼를 발견했어요.

“어? 너희들이구나. 얘들아, 우리 밖으로 구경하러가자.”

“안 돼. 상어한테 몽땅 잡아먹힌단 말이야.”

“그렇다고 언제까지 숨어만 있을 거니? 예쁜 바다 속을 구경도 못하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때, 제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물고기가 말했어요.“

“음. 애들아~ 우리가 제일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헤엄치면 어떨겠니?.”

“와! 정말 멋진 생각이예요.”

“모두들 꼭 붙어 다니며 자리를 지켜 헤엄을 치고, 까망이는 색깔이 다르니까  
제일 중요한 눈을 하렴”

빨간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모여 커다란 물고기처럼 대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까망이가 중간에 들어가 눈처럼 보이게 했지요.

이제 친구들과 까망이는 아무리 큰 물고기가 와도 걱정 없이 신나게 헤엄치며  
다니게 되었대요.

필리핀 전래동화

## 거북이와 원숭이

개작 민은선

옛날옛날 아주 먼 옛날 강가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가근처 숲 속엔 욕심많은 원숭이가 살고 있었지요.

“아이 배고파. 달콤한 바나나 먹고싶다”

원숭이는 나뭇가지를 폴짝폴짝 뛰어 다니며 바나나를 찾았지요.

그 때 강 위에 둥둥 떠 있는 바나나 나무를 발견했어요.

“어? 맛있는 바나나다”

수영을 못하는 원숭이는 모래밭을 기어가고 있는 거북이를 불렀지요.

“거북아~ 거북아. 저기 맛있는 바나나 있는데 우리 나눠먹을래?”

“그래 알았어”

거북이는 강으로 들어가 킁킁거리며 바나나 나무를 건져왔어요.

주렁주렁 달린 바나나를 보자 원숭이는 욕심이 났지요.

“거북아, 내가 먼저 보았으니 내가 더 많이 먹을거다”

“무슨 소리야? 내가 꺼냈으니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둘은 서로 싸우다 원숭이가 한 가지 꾀를 냈지요.

“좋아 그럼 나무를 똑같이 반을 나누자. 그 대신 내가 먼저 고를거야”

“좋아 똑같이 나누어야해”

원숭이는 나무윗동과 아랫부분을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바나나가 잔뜩 달린 나무 윗부분을 들고 얼른 달아났어요.

“어? 내겐 바나나가 하나도 없잖아?”

바나나가 하나도 없는 나무 밑동을 가진 거북이는 속상했지요.

“원숭이야~ 내게도 바나나를 나누어주렴”

“싫어 우린 약속대로 똑같이 나눈거잖아. 그러니 이 바나나는 내거야”

“쳇 원숭이는 나빠. 욕심쟁이야”

바나나를 다 먹어 치운 원숭이는 거북이를 골려 주고 싶었어요.

“거북아 바나나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다시 열릴걸. 너도 한번 해봐”

원숭이의 말을 들은 거북이는 나무의 밑동을 땅에 심었지요.

“이렇게 심으면 정말 맛있는 바나나가 열릴까?”

그리고는 열심히 나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1달 2달..3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정말 나무 밑동에 새잎이 돋아났어요.

“와~ 내 나무가 살아났다”

원숭이의 나무는 금방 시들어 버렸지만 거북이가 심은 나무는 쑥쑥 자라 어느새 바나나가 열렸어요.

“바나나다. 내 나무에 바나나가 열렸다. 히히히 신난다”

하지만 높이 달려있는 바나나를 딸 수가 없는거예요.

거북이는 할 수 없이 원숭이를 불렀지요.

“원숭이야 저 바나나를 따주면 네게도 나누어줄게”

“좋아.” 나무에 올라가 바나나를 따던 원숭이는 또 욕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맛있는 바나나를 내가 왜 줘? ㅋㅋㅋ 혼자만 먹어야지”

“원숭이야 어서 바나나 던져”

“어리석은 거북이야~ 이 바나나는 내가 다 먹을거다”

그리고는 나무 위에서 야금야금 다 먹어버리는거예요.

“원숭이 넌 정말 나쁜 친구다. 가만두지 않을거야”

화가 난 거북이는 꽃게 친구들을 불렀어요.

“애들아, 나 좀 도와줘. 원숭이는 정말 욕심꾸러기야”

거북이 이야기를 들은 꽃게 친구들이 나무아래 모래밭에 숨었어요.

“욕심꾸러기 원숭이를 혼내주자”

잠시 후 “아이 배부르다. 이제 내려가볼까”

바나나를 다 먹은 원숭이는 주룩룩 나무를 타고 아래로 내려왔지요.

그 때 숨어있던 꽃게들이 원숭이 엉덩이를 짹 물었어요.

“원숭이야 혼 좀 나봐라”

“앗! 따가워 앓! 따가워 원숭이 살려”

“친구를 속이는건 정말 나빠~”

꽃게들이 커다란 집게손으로 엉덩이를 짹 물자 원숭이 엉덩이에 있는 털이 쑥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엉덩이. 엉엉엉”

화가 난 원숭이는 꽃게를 집어들었어요.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거야. 절구통에 넣어 찼어버릴까, 바닷속에 처넣을까?”

꽃게들을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바다엔 넣지 말아줘. 무섭단말이야”

“히히히 그래 그럼 혼 좀 나봐라”

원숭이는 꽃게들을 획 바닷속에 던져버렸어요.

“퐁덩~”

하지만 꽃게들은 바다속으로 들어가며 외쳤지요.

“히히히 어리석은 원숭이야. 우린 헤엄치는걸 정말 좋아한단다”

“뭐라고?”

원숭이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대요.

## 꽃피우는 할아버지

개작 : 아사노미키. 개작지도: 민은선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로’ 라는 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시로를 데리고 산에 갔는데, 갑자기 시로가 멍멍 짖었어요.

“할아버지 여길 파보세요. 멍멍, 여기에 무언가 있어요. 어서 여길 파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여길 파보라고? 그래그래 알았다.”

“응? 아이고”

할아버지가 땅을 파 보니 흙 속에서 금이 쏟아져 나왔지요.

“허허허 이제 웬 금이람? 고맙다 시로야. 네 덕분에 우린 이제 부자가 됐구나.”

이 소문을 들은 옆집 할아버지는 욕심이 났지요.

“흐흐흐 그 개가 아주 신통하군. 하루만 빌려 달라고 해서 나도 금을 얻어야겠어.”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시로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보게 내가 잃은 물건이 있어서 찾으려는데 시로를 좀 빌려주게나.”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시로를 빌려 주었지요.

“시로야, 금이 어디에 묻혀있냐? 빨리 찾아봐라. 빨리 빨리 찾으라니까”

산으로 올라간 할아버지는 시로에게 소리치며 이리저리 꼬로 다녔어요.

괴로운 시로는 ‘멍멍’하고 슬피 울었어요.

“으음? 거기로구나. 하하하 나도 이제 부자가 되는거야. 부자~”

그런데 그 흙 속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물건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쓸데 없는 흙이잖아? 이런 멍청한 개 같으니라고? 왜 금을 못 찾는 거냐?”

화가 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시로를 괴롭혀 죽이고 말았어요.

시로의 주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몹시 슬퍼했어요.

“시로야! 미안하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에 시로의 무덤을 만들고 정성껏 보살폈어요.

그런데 시로의 무덤에서 나무가 자라서 쑥쑥 크는 거예요.

작은 나무는 금세 큰 나무가 되었지요.

어느 명절 날, 할아버지는 그 나무를 잘라서 절구를 만들어 떡을 찧었어요.

“응? 이게 뭐야?”

글쎄 떡이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옆집 욱심쟁이 할아버지도 절구를 가져가서 떡을 찧으려고 했지만 떡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로 변해 버렸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절구를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절구가 탄 재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할멈, 시로가 이렇게 재가 되어버렸어.”

바로 그 때 바람이 불어와 재가 날아갔어요.

재는 마른 나무의 꽃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죽은 벚꽃나무에 올라가서 재를 뿌리면서 말했어요.

“시로야~ 꽃으로라도 피어 나거라. 꽃으로 피어라.”

그러자 죽어있던 나무에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단 말이나?

온 나라에 예쁜 꽃을 피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여라.“

그 모습을 본 왕은 기뻐하며 할아버지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시로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대요.

일본동화

## 빨간 도깨비와 파랑 도깨비

개작:아이스유미코,개작지도:민은선

옛날, 어느 산속에 빨간 도깨비와 파랑도깨비가 살았어요.

빨간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그래서 빨간 도깨비는 산 아래에 팻말을 세웠지요.

“나는 마음 착한 도깨비입니다. 누구든지 놀러오세요. 맛있는 과자와 따뜻한 차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흥! 마음 착한 도깨비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 사람들을 속여서 잡아먹으려는 거야.”

“왜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몰라준느 걸까? 흑흑~”

빨간 도깨비는 너무 속상해서 팻말을 부숴 버렸지요.

그때 마침 친구인 파랑도깨비가 찾아왔어요.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마음이 아프겠다.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내가 지금부터 마을에 가서 나쁜 짓을 할게. 네가 지나가던 길인 것처럼 나타나서 나를 혼내줘. 그럼 모두들 너를 좋은 도깨비로 알거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너한테 미안해서 어찌지?”

“괜찮아. 친구 사이에 미안한 게 어디 있어?”

파랑 도깨비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나는 도깨비다, 무서운 도깨비야!”

파랑도깨비는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고,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당장 그만해.”

빨간 도깨비가 와서 파랑도깨비를 꼭 붙잡고, 머리를 콩 때렸어요.

파랑 도깨비는 사람들이 모르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어서어서, 더 세게 때려.”



빨간 도깨비는 너무 미안했지만 파란도깨비 말대로 힘껏 때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어서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빨간 도깨비는 정말 좋은 도깨비구나. 나쁜 도깨비를 혼내주었어.”

“이제 빨간 도깨비와 친하게 지내자.”

사람들은 이제 빨간 도깨비 집으로 놀러왔어요.

빨간 도깨비는 사람들과 친해져 기분이 좋았지만 파란 도깨비가 걱정되기도 했지요.

'아~사람친구가 생겨서 참 좋아. 그런데 파란도깨비 친구는 요즘 어떻게 지내지?'

빨간 도깨비는 오랜만에 파란도깨비 집에 찾아갔지요.

“파란도깨비야, 나 왔어. 파란 도깨비야~. ....음? 집에 없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때문에 편지가 한 장 붙어있었지요.

‘빨간 도깨비야,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겠지?’

내가 너랑 계속 친하게 지내면 사람들이 너도 나쁜 도깨비라고 생각할거야. 나는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 언제까지나 너를 잊지 않을게. 안녕, 나의 친구.’

빨간 도깨비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으앙~ 파란도깨비야, 미안해. 영영 파랑 도깨비야~ 어디 있어~

빨간 도깨비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계속 울었대요.

# 염소를 혼내 준 벌

(A GOAT WITH GLASS AND GOLDEN HORNS)

개작: 민은선

옛날 자작나무 숲이 우거진 어느 농장에 할머니 한분이 계셨어요.

할머니는 정성스레 보리농사를 지었어요.

보리가 파릇파릇 자란 어느 날 염소 한 마리가 보리밭 안으로 들어왔어요.

“으음 맛있겠는 걸. 우걱우걱. 남남남”

“얘 염소야. 어서 나가거라. 내 보리밭이 망가지잖니?”

“첿 할멈. 난 배가 고프다고. 여기에 있는 보리를 다 먹을 거야.”

“이놈 염소야~ 혼내주기 전에 어서 나가거라.”

“할멈~ 내겐 유리 눈알과 금 뿔이 있어. 내가 들이 받으면 아주 혼이 날걸.”

염소가 뿔로 받으려 하자 할머니는 염소가 무서워 울면서 숲으로 달아났어요.  
숲에서 커다란 곰을 만났지요.

“할머니 할머니~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염소가 내 보리 밭에서 나가지를 않는구나.”

“걱정 마세요. 내가 염소를 쫓아 드릴게요.”

보리밭에 달려간 곰이 소리쳤어요.

“야! 이 못된 염소야. 할머니 보리밭에서 어서 나가.”

“건방님 소리 하지 마. 털북숭이 곰아~ 내겐 유리 눈알과 금뿔이 있어.

나한테 혼나 볼래?”

무섭게 달려드는 염소를 보고 곰이 달아났어요.

이번에 할머니는 회색 늑대를 만났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늑대가 보리밭으로 달려갔어요.

“염소야~ 할머니네 보리밭에서 어서 나가.”

“하하하 늑대야 내 금 뿔 맛 좀 볼래?”

염소가 달려들자 늑대도 달아났어요.

여우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로 울고 계세요?”

“에고고~ 못된 염소가 내 보리밭을 몽땅 망가뜨리고 있단다.  
곰이 쫓아도 늑대가 쫓아도 나가지를 앓는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쫓아 볼게요.”

보리밭으로 달려간 여우가 소리쳤어요.

“못된 염소야~ 보리밭에서 어서 나가.”

“흥! 약아빠진 여우야. 가까이 오면 내 금 뿔로 받아 버릴 거야.”

염소가 노려보자 여우도 달아났어요.

“에고 에고 어찌나? 내 보리밭이 다 망가지네.”

강충강충 토끼가 뛰어 왔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토끼가 달려가 말했어요.

“염소야~ 할머니가 슬퍼하시잖니? 이제 그만 보리밭에서 나오렴.”

“으하하하~ 건방진 토끼야! 나한테는 유리 눈알과 무서운 금 뿔이 있지. 나한테 혼나볼래?”

“으앗~ 괴물이다.”

토끼는 깜짝 놀라 달아나 버렸어요.

“저런~ 저런~ 토끼도 달아나 버리네. 이제 어찌란 말인고? 흑흑”

그때 벌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도와 드릴게요.”

“애 벌아~ 곰도 늑대도 여우도 토끼도 모두 염소가 무서워 달아났는데 조그만 네가 어떻게 염소를 쫓아내겠니?”

“할머니 함께 가 봐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벌은 wings~ 날아가서 염소 콧등을 툭 찔렀어요.

“못된 염소야~ 혼 좀 나봐라.”

“앗! 따가워. 음메에~ 음메에. 염소 살려~”

염소는 매에매에 울면서 달아났어요.

“허허허 염소가 벌에게 혼이 나서 달아나네. 벌아~ 정말 고맙다.”

그 후로 염소는 할머니네 보리밭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 공작과 까마귀

개작 민은선

옛날 옛날에 공작과 까마귀는 다정한 친구였어요.  
둘은 모두 하얀색이었죠.  
어느 날 공작과 까마귀는 하늘을 날고 있는 다른 새들을 보았어요.  
“우와~ 예쁜 새들이다. 저렇게 멋진 색깔을 가지고 있다니!  
애 공작아, 우리도 저렇게 멋진 색깔로 꾸미는 것이 어떨까?”  
“그렇까?”  
“내가 먼저 너 칠해줄게.”  
까마귀는 공작의 깃털에 알록달록 멋진 색을 칠해주었어요.  
이번엔 공작이 까마귀를 칠해주게 되었어요.  
“저 새처럼 빨간색으로! 아니, 주황색이 예쁠까?”  
그 때, 하늘에 있던 새들이 어디론가 날아가는거예요.  
“애들아! 너희들 어디 가니?”  
까마귀는 날아가는 새들을 불렀어요.  
“우리는 먹이를 찾으러가. 저 멀리 남쪽나라로 말이야.”  
“먹을 것을 찾으러 남쪽나라로 간다고?”  
“그래, 지금 빨리 가야돼. 너도 같이 갈래?”  
“알았어. 나도 같이 갈게.”  
까마귀는 다른 친구들과 남쪽나라로 가고싶었어요.  
그 때 공작이 말했어요.  
“까마귀야, 가만히 좀 있어. 아직 덜 칠했던 말이야.”  
“나 빨리 가야돼. 그럼 거기 있는 물감을 모두 섞어서 한꺼번에 부어!”  
할 수 없이 공작은 물감을 모두 섞어서 까마귀에게 부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예요?  
글쎄, 그 물감은 까만색으로 변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까맣게 물들어 버린거래요.

## 일 년에 아홉 어흥! 어흥!

개작:민은선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딱 한 쌍밖에 없던 때였어요.

“아기가 없으니까 너무 쓸쓸해. 우리에게도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암 호랑이는 산 넘고 물 건너 하느님께 가서 새끼를 몇 마리나 낳게 될지 물었어요.

“하느님! 저도 아기를 갖고 싶어요. 제게도 아기를 주세요. 얼마나 낳을 수 있을까요?”

“일 년에 아홉, 그런데 내가 말해준 숫자를 꼭 기억해야만 한다.”

“나는 뭐든 잘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지? 옹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게 좋겠다.”

“일 년에 아홉 어흥! 어흥! 일 년에 아홉 어흥! 어흥!”

호랑이는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때 나무위에 있던 커다란 검정새가 그 노래를 들었어요.

“무슨 노래인데 호랑이가 저리도 싱글벙글 하는 걸까?”

궁금해진 검정새는 하느님께 가서 물어 보았지요.

“하느님, 호랑이가 왜 저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호랑이에게 일 년에 아홉 마리씩 새끼를 준다고 했단다.”

“아, 안돼요! 호랑이가 그렇게 많아지면 우리들을 모두 잡아먹고 말거예요.”

“내가 한말을 취소할 수는 없어. 호랑이가 내 말을 기억하는 한은, 일 년에 아홉 마리씩 새끼를 낳게 될게다.”

‘하느님의 말을 기억하는 한이라고? 옹지! 좋은 수가 있다.’

지름길로 돌아온 검정새는 호랑이가 지나가는 순간 나무 위에서 파악! 파악! 큰 소리로 울었어요.

“파악~ 파악~”

호랑이는 그만 깜짝 놀라 노래를 잊어 버렸지요.

“아이쿠 깜짝이야. 너 때문에 노래를 잊어 버렸잖아!”

“노래요? 아~ 아까 호랑이 아줌마가 부르던 노래 말이지요?”

구 년에 하나 어흥! 어흥! , 구년에 하나 어흥! 어흥! 하시던 걸요.”

“아참 그렇지. 검정새야 고맙다.”

호랑이는 기뻐서 다시 노래하며 집으로 갔어요.

“구 년에 하나 어흥! 어흥! 구 년에 하나 어흥! 어흥!”

그래서 세상에는 호랑이가 많지 않게 되었답니다.

독일민화

## 왜 거위들은 맨발로 다닐까요

독일민화. 개작:민은선

옛날이 아주 예쁘고 잘난 척 잘하는 아기 거위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내 발은 참 예뻐”

아기 거위는 자기 발을 바라보다가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가죽장화를 사 주세요. 가죽장화를 신으면 발도 더러워지지 않고 따뜻하고 내가 더 멋질 거 같아요.”

엄마를 졸라 가죽장화를 신게 된 아기거위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걸을 때 얼 굴을 들고 앞을 똑바로 보면서 우아하게 걸었어요.

“우 헤헤헤 저 뒤통거리는 것 봐 ”

친구들이 놀렸지만 멋진 신발을 신은 자기가 부러워하는 줄 알고 더욱 거만하게 걸 어갔지요.

“첿~ 내가 부러워서 난리들이군.”

그런데 그만 얼음이 있는지 모르고 걷다가 쪽 미끄러져 꺾당 하고 넘어졌어요.

“아이구 아파 내 다리~ 으앙~“

엉엉 울고 집에 돌아온 아기거위를 보고 엄마거위는 깜짝놀랐어요

“아가야 조심하지 그랬어, 얼마나 아프니”

의사는 아기거위의 다친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주며 말했어요.

“다 나을 동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한다.”

불쌍하게도 아기거위는 몸이 나을 때 까지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지요.

어느덧 추운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얘들아 내 다리 다 나았어.”

아기거위는 예전처럼 친구들과 놀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기거위는 빨간 신발을 신은 아가씨를 보았어요.

“그래 빨간 신발은 장화보다 가볍고, 수영을 하면 물속에서도 아주 예쁠꺼야.”

아기 거위는 엄마에게 졸랐어요.

“엄마 엄마 빨간 신발을 사주세요.”

빨간 신발을 신은 아기거위는 신발을 자랑하기 위해 연못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수

영하기에는 발이 너무 무거워 자꾸만 가라앉는 거예요.

“꼬르르륵~ 어푸 어푸 거위살려 !”

아기거위는 눈물을 글썽이며 결심했어요.

“이제 다시는 연못근처에 가지 않을 거야”

혼자서 집에만 있던 아기거위는 심심하고 지겨워 졌어요.

“엄마! 너무 심심해요. 이번엔 리본이 달린 녹색신발을 사 주세요.”

“신발을 신으면 우리아가가 예쁘겠지만 빨리 걷지는 못할거야”

“녹색신발은 가벼워서 빨리 걸을 수 있어요.“

엄마를 졸라 새 신발을 신게 된 아기거위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걸어 다녔어요.

꽤 많은 여우가 울타리 구멍으로 엿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으흐흐 통통한 거위다 오늘저녁은 배가 부르겠는걸.”

그때 오리가 여우를 발견했어요.

“여우다 못된 여우가 나타났다. 모두들 어서 피해.”

오리와 토끼 개구리까지 모두 도망쳤지만 신발을 신은 거위는 빨리 걸을 수가 없어 여우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우헤헤헤~ 거위주제에 신발을 신다니...넌 이제 내 밥이다.”

“으악~ 살려주세요. 짹짹~ 거위살려~ ”

그때 도망간 친구들이 엄마거위와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놈~ 못된 여우야~ 우리 아기를 놔줘.”

모두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여우를 혼내주었지요.

“캐갱갱. 아우~ 여우 살려~.”

“흑흑 엄마~ .”

“정말 다행이다. 친구들 덕분에 널 구할 수 있었구나.”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모두 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부터 아기오리는 절대로 장화나 신발을 신으려고 하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것을 제일 좋아하게 되었대요. 물론 친구들도요.



일본 전래동화

# 삿갓 보살 (かさじぞう)

개작: 모리 사찌꼬, 개작지도: 민은선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오늘은 눈 내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설날인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 장을 봐야 하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하지?”

“영감 걱정 마세요. 삿갓을 만들어 팔면 충분히 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열심히 삿갓을 만들었어요.

“눈보라가 더 치기 전에 마을에 가서 팔아야지”

할아버지는 만든 삿갓 다섯 개를 들고 눈길을 나섰어요.

마을에는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서는 장이 열려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어요.

“삿갓이요, 삿갓! 삿갓 사세요!”

할아버지가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설음식 준비로 바빠서 아무도 삿갓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할아버지는 삿갓을 하나도 팔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에고~ 장사는 안 되고 눈도 오니 어서 집이나 가야겠구나.”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 산길을 가다가 할아버지는 잠시 쉬어 가려고 고개를 드니 지장보살님 여섯이 나란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지장보살님들은 눈에 덮여 반쪽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저런~ 얼마나 추우실까?”

할아버지는 지장보살님들 위의 쌓인 눈을 하나씩 손으로 쓰다듬어 치웠어요.

“아, 그래! 이 삿갓을 씌워 드려야겠다.”

할아버지는 지장보살님들의 머리에 삿갓을 씌워 주었어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여섯인데 삿갓은 다섯 개뿐이었어요.

“아이고 삿갓 하나 모자라네, 내가 쓰고 있는 보자기라서 죄송하지만 이거라도 쓰고 주세요.”

할아버지는 쓰고 있던 보자기를 벗어서 여섯 번째 지장보살님의 머리에 씌워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터벅터벅 눈길을 걸어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를 보고 할머니가 깜짝놀라 물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눈이 오는데 보자기는 어디에 두고 눈을 맞고 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집으로 오던 길에 눈을 맞고 있는 지장보살님들을 만나 삿갓을 전부 씌워 주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여보, 참 잘했어요. 지장보살님도 이 눈 속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미안하구려. 삿갓을 못 팔아서 먹을 걸 구하지 못했으니……”

“괜찮아요.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면 되지요.”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뜨거운 물만 마시고 얇은 이불을 덮어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윽고 깊은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쿵~’, 영차!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서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집은 어디에 있나? 삿갓을 씌워 주신 할아버지 집이 여기인가?”

“할멈, 밖에 누가 왔나 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방문 사이로 바깥을 살짝 내다보았어요.

글쎄, 지장보살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레에 쌀이랑 떡이랑 생선이랑 옷이랑 금화까지 가득 싣고 집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집이 여기인가 보군. 어서 이곳에 물건을 내려둬시다.”

“아니~ 이럴수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밖으로 나와 보니, 지장보살님들이 벌써 대문 앞에 먹을 것과 옷가지, 금화를 가득 쌓아 놓고는 다시 ‘영차! 영차!’하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장보살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를 드렸어요.

드디어 날이 밝아 설날 아침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난 밤 지장보살님들이 가져다 준 새 옷을 입고, 맛있는 설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설날을 보냈답니다.

일본 전래동화

## 삿갓 보살 (かさじぞう)

개작: 모리 사찌꼬, 개작지도: 민은선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오늘은 눈 내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설날인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 장을 봐야 하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하지?”

“영감 걱정 말아요. 삿갓을 만들어 팔면 충분히 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열심히 삿갓을 만들었어요.

“눈보라가 더 치기 전에 마을에 가서 팔아야지”

할아버지는 만든 삿갓 다섯 개를 들고 눈길을 나섰어요.

마을에는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서는 장이 열려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어요.

“삿갓이요, 삿갓! 삿갓 사세요!”

할아버지가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설음식 준비로 바빠서 아무도 삿갓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할아버지는 삿갓을 하나도 팔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에고~ 장사는 안 되고 눈도 오니 어서 집이나 가야겠구나.”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 산길을 가다가 할아버지는 잠시 쉬어 가려고 고개를 드니 지장보살님 여섯이 나란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지장보살님들은 눈에 덮여 반쪽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저런~ 얼마나 추우실까?”

할아버지는 지장보살님들 위의 쌓인 눈을 하나씩 손으로 쓰다듬어 치웠어요.

“아, 그래! 이 삿갓을 씌워 드려야겠다.”

할아버지는 지장보살님들의 머리에 삿갓을 씌워 주었어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여섯인데 삿갓은 다섯 개뿐이었어요.

“아이고 삿갓 하나 모자라네, 내가 쓰고 있는 보자기라서 죄송하지만 이거라도 쓰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쓰고 있던 보자기를 벗어서 여섯 번째 지장보살님의 머리에 씌워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터벅터벅 눈길을 걸어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를 보고 할머니가 깜짝놀라 물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눈이 오는데 보자기는 어디에 두고 눈을 맞고 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집으로 오던 길에 눈을 맞고 있는 지장보살님들을 만나 샷갓을 전부 씌워 주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여보, 참 잘했어요. 지장보살님도 이 눈 속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미안하구려. 샷갓을 못 팔아서 먹을 걸 구하지 못했으니……”

“괜찮아요.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면 되지요.”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뜨거운 물만 마시고 얇은 이불을 덮어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윽고 깊은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쿵~’, 영차!’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서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집은 어디에 있나? 샷갓을 씌워 주신 할아버지 집이 여기인가?”

“할멈, 밖에 누가 왔나 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방문 사이로 바깥을 살짝 내다보았어요.

글쎄, 지장보살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레에 쌀이랑 떡이랑 생선이랑 옷이랑 금화까지 가득 싣고 집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집이 여기인가 보군. 어서 이곳에 물건을 내려둬시다.”

“아니~ 이럴수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밖으로 나와 보니, 지장보살님들이 벌써 대문 앞에 먹을 것과 옷가지, 금화를 가득 쌓아 놓고는 다시 ‘영차! 영차!’하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장보살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를 드렸어요.

드디어 날이 밝아 설날 아침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난 밤 지장보살님들이 가져다 준 새 옷을 입고, 맛있는 설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설날을 보냈답니다.

일본 전래동화

## 꽃피우는 할아버지

개작 : 아사노미키. 개작지도: 민은선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로’ 라는 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시로를 데리고 산에 갔는데, 갑자기 시로가 멍멍 짖었어요.

“할아버지 여길 파보세요. 멍멍, 여기에 무언가 있어요. 어서 여길 파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여길 파보라고? 그래그래 알았다.”

“응? 아이고”

할아버지가 땅을 파 보니 흙 속에서 금이 쏟아져 나왔지요.

“허허허 이제 웬 금이람? 고맙다 시로야. 네 덕분에 우린 이제 부자가 됐구나.”

이 소문을 들은 옆집 할아버지는 욕심이 났지요.

“흐흐흐 그 개가 아주 신통하군. 하루만 빌려 달라고 해서 나도 금을 얻어야겠어.”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시로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보게 내가 잃은 물건이 있어서 찾으려는데 시로를 좀 빌려주게나.”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시로를 빌려 주었지요.

“시로야, 금이 어디에 묻혀있냐? 빨리 찾아봐라. 빨리 빨리 찾으라니까”

산으로 올라간 할아버지는 시로에게 소리치며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괴로운 시로는 ‘멍멍’하고 슬피 울었어요.

“으음? 거기로구나. 하하하 나도 이제 부자가 되는거야. 부자~”

그런데 그 흙 속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물건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쓸데없는 흙이잖아? 이런 멍청한 개 같으니라고? 왜 금을 못 찾는 거냐?”

화가 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시로를 괴롭혀 죽이고 말았어요.

시로의 주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몹시 슬퍼했어요.

“시로야! 미안하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에 시로의 무덤을 만들고 정성껏 보살폈어요.

그런데 시로의 무덤에서 나무가 자라서 쑥쑥 크는 거예요.  
작은 나무는 금세 큰 나무가 되었지요.  
어느 명절 날, 할아버지는 그 나무를 잘라서 절구를 만들어 떡을 찼었어요.  
“응? 이게 뭐야?”  
글쎄 떡이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옆집 욱심쟁이 할아버지도 절구를 가져가서 떡을 찼으려고 했지만 떡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로 변해 버렸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절구를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절구가 탄 재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할멈, 시로가 이렇게 재가 되어버렸어.”  
바로 그 때 바람이 불어와 재가 날아갔어요.  
재는 마른 나무의 꽃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죽은 벚꽃나무에 올라가서 재를 뿌리면서 말했어요.  
“시로야~ 꽃으로라도 피어나라. 꽃으로 피어라.”  
그러자 죽어있던 나무에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단 말이나?  
온 나라에 예쁜 꽃을 피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여라.”  
그 모습을 본 왕은 기뻐하며 할아버지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시로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대요.

## 주먹밥이 데구루루

개작: 에이또꾸 에리 개작지도: 민은선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들고 산으로 나무하러 갔어요. 찌억 찌억 열심히 나무하다가 배가 고파 주먹밥을 먹기로 했대요.

“자, 맛있게 먹어 볼까.” 하고 할아버지가 주먹밥을 먹은 순간! 주먹밥이 데구루루 미끄러졌지 뭐예요.

“아이고, 내 주먹밥~거기 서. 거기 서!”

하지만 주먹밥은 멈추지 않았죠. 그러다 조그만 구멍 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구멍 속에서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고양이 야옹이는 너무 무서워. 고양이 없으면 살맛 나지. 쑹쑹쑹 호잇 쑹쑹쑹!”

노래를 듣던 할아버지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구멍 속에 우선 모자를 떨어뜨려 봤어요.

”모자 데구루루 쑹 쑹 쑹 모자 데구루루 쑹 쑹 쑹” “호호, 이것 참 재밌구려!” 다음에는 조끼를 떨어뜨려 봤어요. “조끼 데구루루 쑹 쑹 쑹 조끼 데구루루 쑹 쑹 쑹” “ 아이고. 정말 재밌구나. 다음에는 내가 간다. 호잇! ” “할아버지 데구루루 쑹 쑹 쑹 할아버지 데구루루 쑹 쑹 쑹 “ 할아버지가 눈을 떠 보니 쥐들의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주먹밥과 조끼를 준 답례로 노래하고 춤을 춰 줬어요.

“고양이 야옹이는 너무 무서워. 고양이 없으면 살맛 나지. 쑹 쑹 쑹 호잇 쑹 쑹 쑹!” 할아버지는 고양이 ‘고’ 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죠. 그리고 쥐들이 준 보물을 한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엮든 옆집 못 된 할아버지는 질투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먹밥을 들고 모자와 조끼를 입고 산으로 갔어요. 짹짹, 나무를 몇 개 하더니 주먹밥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데구루루 굴러가는 주먹밥을 쫓아갔어요. 역시나 구멍에 쏙!

“흠흠, 여기구려.” 그리고 모자와 조끼도 차례대로 던지더니, “영차” 하며 스스로 구멍에 몸을 날렸지 뭐예요.

쿠궁!

취들은 놀라면서도 선물을 고맙다며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고양이 야옹이는 너무 무서워. 고양이 없으면 살맛 나지. 쑥 쑥 쑥 호잇 쑥 쑥 쑥!” 그 노래를 듣던 욕심 많은 할아버지.. ‘가만 있자..고양이 흥내를 내면 저 금화는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 고양이다! 야옹~!!”

그 순간 온통 주변이 깜깜해 졌어요. 취들의 슬픈 울음 소리가 들려 왔지요. 금화가 든 상자를 꼭 붙잡고 할아버지는 외쳤어요. “출구는 어디야!”

그러나,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저 헤매기만 했습니다.

구멍 위를 지나간 소년들이 말했어요.

“어라? 두더지잖아? “ 쿡! 쿡! 쿡!

결국 욕심 많은 할아버지는 하도 쑥쑥해서 두더지가 되었대요.

## 중국전래동화

#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쏟아져요

개작 : 오혜결(대만) , 개작지도: 민은선

원작 : 중국 포송령

1640년 출생. 문학가.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쏟아져요” 는 “요재지이“ 단편 소설집 중 한 이야기. ”요재지이“ 는 중국의 삼대 기이한 소설 중에 하나이다.

옛날 옛날에 학문에 아주 능통한 학자가 혼자 숲속에 살고 있었어요.

아주 깊은 어느 날 밤 “똑똑똑”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굴까? 이런 깊은 산 속에 누가 찾아 온걸까?”

학자가 문을 활짝 열어보니, 한 할아버지가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누구 십니까? 이 깊은 밤에 웬일 이십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요. 저는 원래 여우입니다. 저는 학자님의 지식과 성품을 존경합니다. 제가 싫지 않으면 학자님과 친구가 되어도 될까요?”

학자는 조금 무섭긴 했지만 진심으로 부탁 하는 여우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어요.

학자와 여우 할아버지는 매일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이좋게 지냈어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학자는 여우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여우 할아버지, 여우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돈도 만들 수 있나요?”

여우 할아버지는 학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마지못해 말했어요.

“네, 그럼요 만들 수 있지요. 엽전을 조금 가지고 와보세요.”

학자는 바로 엽전 몇 개를 여우에게 주었어요.

여우 할아버지는 학자를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금방 방안에 꽉 차서 무릎까지 차올랐지요.

“으하하하하~ 정말 신기하군.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어.”



학자는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여우 할아버지는 학자에게 말했어요. “이제 충분하니?”

“네. 이정도면 충분해요. 하하하 여우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쌓여 방문을 열수 없게 되자, 여우 할아버지와 학자는 창문으로 나갔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난 이제 들어가 쉬어야겠어!” 여우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우 할아버지가 가자, 학자는 다시 돈이 가득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방안에 많던 돈이 모두 사라지고 원래 있던 엽전만 남게 되었어요. 학자는 매우 놀라서 온 방안을 여기저기, 구석구석 모두 뒤졌지만 그 많던 돈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이런 괴씸한 여우 같으니..... 날 속인게 분명해.”

학자는 매우 화가 나서 여우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이봐. 여우~ 날 속였어. 마술은 가짜였다고. 어서 내 돈 내놔.”

그러자 여우 할아버지가 학자에게 말했어요.

“학자님, 저는 학자님의 인품을 존경하여 학자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학자님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대가만 바란다면 강도나 되세요!”

여우 할아버지는 말이 끝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 후로 여우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 중국괴물 연 이야기

개작자 민은선

옛날 옛날 먼 옛날에 중국에 무서운 괴물이 살았어요. 이 괴물의 이름은 바로 연이었지요. 연은 더위를 싫어해서 계속 바닷속에서 잤어요. 하지만 설날이 되면 마을로 올라와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먹었어요. 마을사람들은 괴물 연을 피하기 위해 설날 전 날에 다 도망을 갔지요. 그런데 어느해, 백발이 하얀 할아버지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마을에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아, 여보게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

할머니- “아이구, 할아버지, 얼른 도망가셔야 해요 ! 좀있으면 괴물 연이 나타나면 사람들을 잡아 먹어요..!

할아버지- “나한테 음식을 줄 수 있겠나...? 그리고 빨간 천과 빨간 종이 2장만 주면 내가 연을 물리쳐 드릴 수 있다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진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보여 먹을 것을 나누어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빨간 종이를 문 주변에 붙이고 빨간 천을 자신 몸에 뒤집어 썼어요. 이때였어요! 괴물 연이 이 마을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괴물 연- 뭐야..? 다 어디로 간거야?? 가만두지 않을테다!!

화가난 연은 씩씩 거리며 이집저집 돌아 다녔어요. 이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연은 소리는 곳으로 달려 갔어요.

오아~ 다 잡아 먹어버릴테다.”

괴물 연이 할아버지한테로 달려들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폭죽을 터트리자 괴물 연은 눈을 감싸쥐었어요.

"으아아~ 뭐야?!! 빨간 색이잖아!!! 눈이 너무 부셔 ..! 으아 따가워 이게 뭐야?? 몸이 너무 아파 ..! 나죽네 나죽어~"

연은 허겁지겁 도망갔어요.

다음 날 피난갔다 온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괴물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연을 쫓기 위해 문 양쪽과 문 위에 빨간 종이를 붙이고 폭죽도 터트렸어요.

그 이후부터 해마다 설날이 되면 폭죽을 터트리고 문 양 옆에 빨간 종이를 붙이게 되었대요.

## 쥐순이의 신랑

중국 번역. 개작·민은선

옛날에 쥐 부부가 예쁜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허허허 우리 쥐순이는 정말 예쁘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예쁜 우리 쥐순이에게 멋진 신랑감을 찾아주기로 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쥐순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직접 멋진 신랑감을 찾아 올게요.”

쥐순이는 멋진 신랑감을 찾아 여행을 떠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건 해님일거야.”

“해님~ 저의 신랑이 되어 주세요.”

“하하하 쥐 아가씨 나는 구름이 오면 가려진답니다.”

쥐순이는 구름에게 부탁했어요.

“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구름님~ 네 신랑이 되어 주세요.”

“하지만 쥐아가씨~ 난 바람이 불면 쫓겨나는 걸요.”

이번에 쥐순이는 바람을 찾아갔지요.

“바람님~ 바람님~ 저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에고고~ 쥐 아가씨. 난 힘이 세지 않답니다. 저 벽이 막고 있으면 꿈쩍을 못하는 걸요.”

쥐순이가 벽을 찾아가자 벽은 벌벌 떨며 말했어요.

“가까이 오지마. 난 너희들이 무섭단 말이야. 내 몸에도 구멍을 내잖아.”

벽의 말을 들은 쥐순이는 실망했어요.

“도대체 정말 힘이 센 신랑은 어디에 있는거야?”

그때 멋진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며 지나가는걸 보았지요.

“그래! 우린 고양이 한텐 꿈쩍도 못하잖아. 저 고양이에게 신랑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쥐순이는 고양이에게 다가가서 부탁을 했어요.

“잘 생긴 고양이님~ 저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허허허 귀여운 쥐 아가씨 그렇게 하지요.”

다음 날 쥐순이네 동네에선 멋진 결혼식이 열렸어요.  
쥐순이와 고양이의 결혼식이었지요.  
고양이는 멋진 마차와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쥐순이를 신부로 맞이했지요.  
쥐부부도 기뻐하며 쥐순이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쥐순이의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여보~ 우리 쥐순이가 잘 살고 있겠지요?”  
“그럼~ 그렇게 훌륭한 신랑한테 시집갔는데 아주 잘 살고 있을거야.”  
“어떻게 사나 궁금한데 한번 가 볼까요?”  
쥐 부부는 사위인 고양이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보게~ 사위 잘 있었나?”  
“어서 오십시오 장인어른, 장모님~”  
그런데 어디에도 쥐순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보게 사위! 우리 쥐순이는 어디에 있나?”  
“네. 장모님~ 쥐순이가 워낙 예뻐서 보기에다 아깝지 뭐예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못하게 제가 뺏속에 넣고 다닌답니다. 허허허.”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은 쥐부부는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